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美容教育機關 現況과 發展方案

-失業者 無料教育과 職業能力開發 계좌제를 中心으로-

2011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李貞賢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昞姬

美容教育機關 現況과 發展方案

-失業者 無料教育과 職業能力開發 계좌제를 中心으로-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in Beauty
Educational Institutions

-Centering on Free Education for the Unemployed and Job Ability
Development Account System-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李 貞 賢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昞姬

美容教育機關 現況과 發展方案

-失業者 無料教育과 職業能力開發 계좌제를 中心으로-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in Beauty
Educational Institutions

-Centering on Free Education for the Unemployed and Job Ability
Development Account System-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李 貞 賢

李貞賢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실업자 직업훈련의 분석	4
1. 실업자 훈련의 개념	4
2. 실업자 훈련의 종류	5
3. 실업자 직업훈련 체계	6
제 2 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분석	10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개념 및 추진배경	10
2. 추진방향	10
3. 적용범위 및 대상	12
4. 지원 내용	12
5. 지원 절차	13
6.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기대효과	16
제 3 절 현행 실업자 훈련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비교	17
제 3 장 연구방법	19
제 1 절 연구문제	19
제 2 절 측정도구	20
제 3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1

제 4 절 자료의 분석	21
--------------------	----

제 4 장 연구결과	22
-------------------------	-----------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2
--------------------------	----

제 2 절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이용행동	24
-------------------------------	----

제 3 절 국비지원 미용직업훈련기관 형태에 따른 이용행동	54
---------------------------------------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71
----------------------------	-----------

제 1절 요약 및 결론	71
--------------------	----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3
------------------------	----

【참고문헌】	74
---------------------	-----------

【부 록】	76
--------------------	-----------

ABSTRACT.....	84
----------------------	-----------

【 표 목 차 】

[표-1] 관련법의 직업훈련 규정	7
[표-2]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별 훈련대상자 규정	8
[표-3]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전 • 후 비교	16
[표-4] 현행 실업자 훈련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비교	17
[표-5] 설문지 구성	20
[표-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3
[표-7]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정보원	25
[표-8]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26
[표-9]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기간	29
[표-10]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	28
[표-11] 1일 교육시간	29
[표-12] 적절한 1일 교육시간	29
[표-13]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30
[표-14]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31
[표-15] 미용분야 근무기간	32
[표-16] 국비지원 미용훈련교육 지원 동기	33
[표-17] 기대되는 국비지원 미용훈련교육의 도움	34
[표-18]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재료)	35
[표-19] 소속 미용교육훈련기관의 훈련인원	36
[표-20]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교재	37
[표-21]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기대대비 교육내용	38
[표-22]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이론수업내용(수준)	39
[표-23]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실기수업 내용(수준)	40
[표-24]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의 연계성	41
[표-25]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중도 포기 의사	42
[표-26]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	43

[표-27]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44
[표-28] 향후 미용과에 필요한 사항	45
[표-29] 주변인들에게 미용교육기관 추천의사	46
[표-30] 현재 미용교육과정 수료 후 진로	47
[표-31] 관심 있는 미용직업	48
[표-32]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개선사항과 수료 후 관리사항	50
[표-33]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여부.....	51
[표-34]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수준.....	52
[표-35] 현재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52
[표-36]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53
[표-37]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교육시간	55
[표-38]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시간	56
[표-39] 1일 교육시간	58
[표-40] 적절한 1일 교육시간	59
[표-41]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60
[표-42] 미용훈련교육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61
[표-43] 미용분야 근무기간	63
[표-44]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64
[표-46]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여부	65
[표-47] 현재 미용훈련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68
[표-48]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70

【 그림 목 차 】

<그림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 대상 훈련과정	11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 환경은 과거의 산업화시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에 우리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유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한 양적 투입증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발전 전략은 곧이어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청년, 여성, 중 고령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¹⁾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도 변화시켰다.²⁾ 또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 국제 개방화사회, 민주 자율화사회, 개성 다원화사회이다. 특히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며 그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는 급속한 기술 변동을 축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가 핵심적인 변화로 주목되고 있다.³⁾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술혁신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은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로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우리의 실업자 직업훈련체계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로 초유의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직업훈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실업자의 실질적인 재취업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다소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기준, 2007년 실업자 직업훈련참여자의 20%만이

- 1) 박정호, 「직업교육훈련의 법제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법무대학원 법무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1
- 2) 박정희,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11
- 3) 권정남,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이력관리 시스템의 개발」, 금오공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1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현행 실업자 직업 훈련 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⁴⁾

국내에서 현행 실시되고 있는 실업자교육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업자 무료교육 제도는 만 15세부터 65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무료교육이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사전에 일정한도(연간 200만원)를 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실업·재직상태에서 받은 정부 지원훈련 모두 포함)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이후에는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용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의 전반적인 흐름의 중심이 근로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한 경쟁력으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주도적인 선택권강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주요 내용 전개는 실증조사 차원에서 실업자 국비무료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그리고 이 둘의 교육을 행해 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훈련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4) 김태훈, 「우리나라 직업훈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인, 주부, 서비스 자영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용교육기관을 통해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받은 남녀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8월30일 ~9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방법으로는 미용기관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과 실업자교육과 계좌제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어느 쪽의 교육이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 실시 후 본조사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와 단행본,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정부기관의 각종 간행물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실업자 직업훈련의 분석

1. 실업자 훈련의 개념

‘실업자직업훈련’이라 함에 있어 ‘실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용어상의 구분 문제가 제기되는데 원래 그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실직자’란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 직업이나 직장을 잃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⁵⁾ ‘실업자’란 우리나라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조사주간인 지난 1주간에 소득을 목적으로 적어도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으나, 해당 주간에 구직 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있으면 일할 능력이 있는자’를 말한다.⁶⁾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 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기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직업훈련은 넓은 의미에서 직업교육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 또는 특정한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교육으로 제한하여 사용되는 용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 훈련이라 하기도 한다.⁸⁾ 또한 교육훈련은 인력개발의 직업적인 부분으로서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하여 설계된 학습이다. 기업조직의 교육훈련은 종업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고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고⁹⁾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와 직결된 영리적 의도 외에 근로자 개개인이 전인으로서 주체적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사회교육의 한 부분의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¹⁰⁾

5) 권정량,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7

6) 한우섭, 「여성 직업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4

7) 박지홍, 황혜자,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02, p.73

8) 윤재연, 「산업사회에서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16

9) 장연진, 「호텔 교육훈련 전이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7

우리나라의 현행 직업훈련법 제2조에서는 “직업훈련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라 함은 고용된 자와 취업 할 의사를 갖춘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이란 각 산업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 취업한 자들에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직업에 관한 인간의 내·외적행동 즉, 전문지식, 기능, 필요한 정보, 태도, 가치관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시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에 적절히 적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다.¹¹⁾

실업자 직업훈련이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즉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인정하고 있는 시설 등과 교육관계법에서 의한 학교, 기타 노동부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교육훈련 기관, 사설 학원 등)에 국가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하며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실시할 수 있는 훈련 직종은 성장 유망성, 자격취득의 용이성,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기관 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훈련 직종에는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과정, 세미나, 심포지움, 어학, 취미, 오락과정 등은 제외되고 있다.¹²⁾

2. 실업자 훈련의 종류

정부는 근로자 직업 훈련 개발 법에 의해 여러 가지 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직업 훈련에는 전직 실업자 훈련, 신규 실업자 훈련, 우선 선정직종 훈련, 고용촉진 훈련, 자활직업 훈련, 여성 가장실업자 훈련 등이 있다.¹³⁾

10) 허현란, 「기업 내 교육훈련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13

11) 강미나, 「여성 직업훈련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2

12) 안정연, 「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 개선방안」,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5

13) 김혜원, 「성인여성들의 미용교육 과정 만족도 및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디자인대학원뷰티디자인과 석사학위논문, 2009, p.20

3. 실업자 직업훈련 체계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책결정의식적인 틀은 노사정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나, 정책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능력개발 정책은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이 경직적이고, 이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대상의 선정, 훈련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직업훈련이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장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¹⁴⁾

실업자의 경우,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과정 승인이 기업·구직자 등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수요조사 없이 지방노동청의 형식적인 훈련수요 조사를 거쳐 노동부의 지방청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연간 훈련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노동부 능력개발 심의관실에서 예산배정과 함께 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해 지방관서에 일괄 시달하면 지방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훈련승인과정과 실적에 크게 벗어남이 없이 형식적인 지역별, 직종별 훈련수요조사를 거쳐 훈련기관에서 작성한 훈련계획 및 훈련과정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

또한 훈련과정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전년도 연말에 다음연도 훈련계획을 전국적으로 일괄 승인하고 있어 훈련기관은 매년 동일한 훈련과정과 훈련커리큘럼으로 연간 훈련일정을 일거에 신청하게 되고 이러한 훈련과정은 형식화된 훈련평가 심사 표에 의해 점수화되게 되고 훈련과정심사위원회는 노동관서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훈련 평가 심사 표 점수 순서에 따라 사후 주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⁵⁾ 이로 인해 훈련일정은 훈련기관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대체로 5~6개월의 비교적 장기 과정으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와 신규실업자(일반회계로 운영)를 합반하여 인원을 배정하고 있고 훈련기관은 개설 훈련과정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인받은 훈련인

14) 김주섭, 『지역고용·능력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4, p.23

15) 권정량, 전계논문, p.34

원을 채우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의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게 된다.¹⁶⁾

실업자 직업훈련의 목적은 첫째로 실업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를 보전, 개발 하는 것이고 둘째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실업급여 및 훈련수당)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실업과 재취업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실업자 직업훈련의 목적도 일회적인 재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의 틀 내에서 조명되고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의 첫 번째 사업으로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2조), 그 외에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훈련으로서 자활지원훈련(제13조),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14조), 우선선종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제15조)등을 명시하고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대상자는 아래[표 1]와 같이 주로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자활대상자, 여성가장실업자 등 목표 집단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 직종 여부 등에 따라 현재 8개의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1] 관련법의 실업자 직업훈련 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비고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업자 및 제3조 제3항의 훈련대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집단(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일용근로자 등) 여성가장, 북한	제31조(실업자의 취업훈련)법 제24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따라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해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 ※시행	

16) 김영진,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2

이탈주민 등에 대한 훈련요건을 정할 것을 명시	령에서 실업자취업훈련의 대상자를 자세히 규정함	
제13조(자활훈련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요건을 정할 것을 명시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요건을 정할 것을 명시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요건을 정할 것을 명시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표 2].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훈련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훈련비를 신청하여 지급을 받으며, 노동부는 훈련생에게 구직 등록과 직업훈련상담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표 2] 실업자 직업훈련프로그램별 훈련대상자 규정

훈련구분	훈련대상	훈련과정	지원내용	기타
전 직 실업자훈련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시한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	노동부인정 훈련기관에서 승인과정 수강, 1개월-1년까지 취업 전 3회까지 수강가능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지만 고급과정은 훈련생비용 부담) 교통비 5만원 식비6만원	
신규 실업자훈련 (일반회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노동부인정 훈련기관에서 승인과정 수강, 1개월-1년까지 취업 전 3회까지 수강가능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우 선 선 정 직종훈련	만15세이상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훈련기관에	우선선정직종수당 20만원	

(고용보험 기금)	한 실업자,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재학중인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서 고시직종에 대 한 훈련수강6개월 -12개월과정(대한 상의는 2년과정)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고용촉진 훈련 (일반 회계)	고용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실업자, 취업보호 대상자	각 시도지사가 지 정하는 훈련기관에 서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등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자활직업 훈련 (일반 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취업 또는 창업용 이직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승인한 독자과정 또는 실 업자훈련과정, 1개 월이상 1년이하 주 간과정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자 활 수 당 10 만원
북한이탈 주민훈련 (일반 회계)	북한이탈주민 (거주기보호기간 5년)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가 계 보 조 수당,15만 원 가족수 당3-4만원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일반 회계)	이혼, 사별 등으로 배 우자가 없는 자 미혼여성으로서 무보가 모두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	훈련기간은 1월이 상 1년이하 훈련시 간은 60시간 이상, 주간과정을 원칙으 로 함. 학급당 정원 은 60명 이내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가족수당1 인당 5만원(3인 한도) 가 계 보 조 금5만원
영세자 영업자 훈련 (일반 회계)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영업자로서 구직 등록하고 훈련을 희망 하는 자		교통비5만원 식비6만원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의 능력개발 사업
비로 구성되는데, 지난 2002년 이후 전직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신규실업
자훈련, 고용촉진훈련의 순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재원에 따라서 국비훈련과
고용보험 능력개발 사업비 지원훈련으로 구분되고, 이중에서 고용보험지원훈련은
대부분 전직실업자훈련과 우선선정직종훈련이다. 2006년도 실업자훈련예산액을 살
펴보면 고용보험지원훈련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¹⁷⁾

17) 김태훈, 전계논문, p.23

제 2 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개념 및 추진배경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훈련서비스 전달체계이다.

그동안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07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 실업자 훈련제도 바우체제 도입 논의를 거쳤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평생 학습 계좌제”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2. 추진방향

훈련생은 훈련기관 지원에서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기 주도적 훈련선택권을 확대, 훈련기관은 훈련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고 훈련과정의 다양화 및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을 제고한다. 정부는 상담, 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성과 및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훈련시장은 시장가격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훈련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 한다.

기업의 훈련수요를 정부가 승인하는 범위내로 제약함에 따라 실제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자훈련의 개인 지원방식은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 하는 방식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전환하고, 재직자 훈련의 개인지원방식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수강지원금 제도 비용지급방식 변경, 훈련과정심사의 전문기관 위탁, 이력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 관리한다.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의 사업주 지원방식은 산업 또는 업종별 단체 등이 중소기업의 숙련수요를 결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편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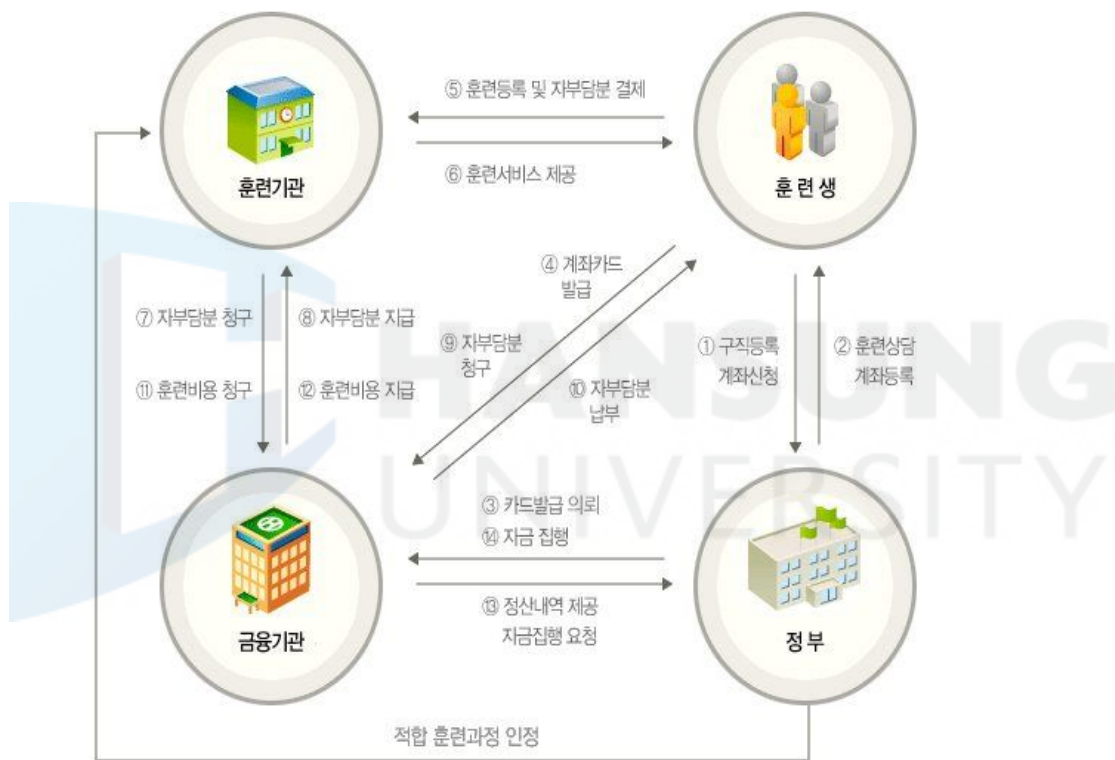
▶ 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

▶ 지원절차



-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 1544-7000)로 문의



<그림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 대상 훈련과정

3. 적용범위 및 대상

구직자 및 취약근로자에 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한다. 시범사업은 전직·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는 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 운영한다. 시범실시 결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용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계좌 발급대상은 상담을 통해 직업(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근로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선택권 확대에 의한 훈련 수요의 대폭 증가와 불요불급한 훈련참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범사업 과정에서 훈련수요 추이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시에는 장기구직자 등 취약 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지원 내용

1인당 적정 지원한도액은 현행 실업자훈련 평균 훈련비 200만원 및 평균 훈련기간, 자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00만원으로 설정한다. 계좌발급 횟수는 취업전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한도를 모두 사용하고도 일정기간(예:6개월 이상) 이후까지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계좌를 재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업이후 일정기간(예: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가 다시 실직하는 경우 재발급한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적용 확대 시 현행 근로자 능력개발 계좌제 수강지원금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 금액 설정한다. 현재 근로자능력 개발카드제 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유효기간 중 훈련이 개시되었으나 종료시점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훈련 종료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훈련도중 취업 또는 수강 포기 시 중도탈락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 훈련비 및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훈련비의 20%를 훈련생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훈련생의 책무성 및 훈련 몰입도를 제고한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자부담 율을 결정하되, 취약계층은 면제, 훈련 편중 직종은 부담률 상향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일부

경쟁력 있는 기관은 자부담 과정이 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지원기준으로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훈련비 과다인상 또는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 억제방안(ETPL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훈련비 신청 기관 제외 등)을 마련한다. 교통비, 식비 지급은 현행과 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출석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현행 제도에서 교통비는 일 4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단위기간(1월)동안 80%이상 출석 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식비는 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단위기간(1개월)동안 80%이상 출석 시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5. 지원 절차

상담 및 훈련정보 제공은 직업(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구직등록 또는 LAP 수립 시, 일정양식의 체크리스트(재직/구직기간, 희망훈련-산업수요간 매칭정도, 훈련경험 등)를 활용하여 훈련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차 상담 결과, 훈련필요성이 낮거나 희망 직종을 정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상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상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이의신청→심의위원회→재결정)를 통해 처리한다.

표준화된 개인별 훈련계획서(ITP, Individual Training Plan)를 통해 훈련분야, 훈련생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확정하고 변경 시 재 상담을 통해 계좌를 갱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훈련정보 제공은 HRD-net을 사용자(user)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과정의 내용, 시설, 장비, 교사수준, 취업률(연령별, 기업규모별 등), 훈련생 만족도 결과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훈련과정별 수강평가 및 훈련생 만족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취업희망분야의 근무환경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HRD-net 등에 탑재한다. 또한, 훈련이수자 실태조사, 작업 전망자료 등을 통해 직종별, 취업률, 임금수준, 직장 정착률(근속률), 관련업종의 직업전망 등 정보를

제공한다. 직종별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당 업계의 직종전망 등 정보를 제공한다. 직종별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당 업계의 전망 및 취업 후 경로, 평균 임금수준, 필수 훈련코스(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HRD-net 등에 게재 된다.

전산망 구축은 향후 적용범위 확대 방향을 감안하여 HRD-net을 사용자(user)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 보완한다. 사용자 요구 파악 및 기획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외부전문 기관이 담당하고, 전산망 개발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적합 훈련과정 목록 제공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합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목록화(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하여 제공하고 훈련생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내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적합훈련과정 목록(ETPL) 제공을 위한 심사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련기관 단위가 아닌, 훈련과정 단위로 심사한다. 훈련기관이 신청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훈련과정 내용의 적절성, 훈련장비, 교사수준과의 일치도, 구직자, 근로자 등 대상별 훈련목적의 적합성, 산업현장의 기술수요 반영 정도, 훈련수준, 기간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심사한다. 과정수준은 전체적인 난이도를 고려하여 등급으로 구분하고 과정참여요건(예시: 선행학습 요건, 관련자격증 소지필요 여부 등)을 공개하여 훈련선택 및 수시 모니터링의 참고자료 를 제공한다.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관리를 위해서 취업률(정부지원과정을 포함한 모든 훈련생)등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훈련과정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목록(ETPL)에서 제외시킨다. 최소기준에미달하는 과정만 제외하고, 취업률 등 정보제공강화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이 과잉 공급되는 직종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심사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자비 부담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심사주체 및 주기는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 현장전문가중심의 직종분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고용지원센터의 훈련과정 승인(인정) 업무 감소를 기대한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내실 있는 심사 및 연간 단위 성과관리를 위해 연1회 정기심사를 원칙(유효기간1년)으로 하고, 계좌 발급자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미등재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거쳐 해당과정을 “가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은 지방노동관서(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사)의 현장실사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 하도록 한다.

계좌발급은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한 계좌를 발급한다. 카드 자체의 대금결제 기능을 부여하여 편의성 및 자기비용 인식 제고를 통한 신중한 훈련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의 신용카드 프로세스를 활용한 훈련비용을 산정, 지급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의 훈련비용 정산업무를 감소시킨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07년부터 노인 돌보미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에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다.

훈련비 결제, 정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비용을 정산하는 프로세스로 개편하고 훈련비 결제, 정산 절차는 훈련생 자 부담금 및 정부지원분 절차가 다르다.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자비 부담 분 및 정부지원분 절차가 다르다. 훈련생 자비 부담 분 결제(훈련생)→자비 부담 분 대금청구(훈련기관)→대금지급(금융기관)→훈련생에 자비 부담 분 대금청구(금융기관)→납부(훈련생) 절차를 거치며, 정부지원분은 훈련비용 정산시스템에 따라 금융기관이 훈련기관별 훈련비 정산내역을 송부하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금융기관에 자비 부담 분을 제외한 훈련비 청구(훈련기관)→정부에 정산내역 송부, 자금집행 요청(금융기관)→금융기관에 자금집행(노동부)→ 훈련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며(금융기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도 금융기관이 지급된다.

훈련이력 관리는 HRD-net을 개편, 보완하여 개인별 훈련이력을 통합 관리, 지원한다. HRD-net을 개편, 보완하여 개인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 이력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계좌신청, 계좌한도관리, 수강내역, 취득자격정보 등을 제공, 추진한다.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훈련이력관리가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업 내 자격제도 등을 확장, 업종별 단체 등에서 통용되는 직업능력 인증 제도를 마련토록 지원하고,

인증제도와 훈련이력의 연계를 도모한다.

6.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활용으로 인한 훈련생, 훈련기관 및 정부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은 훈련시장의 서비스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를 제고해 준다. 또한 훈련 상담,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훈련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을 강화한다.

또한 정해진 물량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필요 없이 경쟁력 있는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훈련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정부는 훈련비 일부 자부담, 지원한도 제한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활용한 훈련비용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관서의 훈련비 신청, 지급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전과 후의 지원체제, 공급기관, 훈련프로그램, 수요자지원, 지원방식 및 지원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3].¹⁸⁾

[표 3]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전·후 비교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지원체제	공급자 중심 정부→훈련기관→훈련생	수요자 중심 정부→훈련기관→훈련생
공급기관	한정된 공급기관	다수의 공급기관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된 훈련과정 ※ 6개월, 1년 단위로 획일화	다양한 훈련기관 ※ 훈련기관의 다양화로 필요훈련 조합
수요자	훈련 상담, 정보제공 미흡	훈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18) 이남철, 정지선,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p.60

지원		
지원방식	참여횟수 제한방식	지원 금액 한도 설정방식 ※ 일정비율 본인부담을 통해 책무 성 강 화
지원수준	표준 훈련비단가 기준	(훈련서비스) 시장가격 기준

제 3 절 현행 실업자훈련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비교

현행 실시되고 있는 실업자훈련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차이를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4]¹⁹⁾.

[표 4] 현행 실업자훈련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비교

구분	현행 실업자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	•훈련기관	•훈련생
지원수준	•훈련가능횟수 3회	•200만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훈련가능
훈련기간	•6개월 또는 1년 등 획일적-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단일과정으로 편성→ 수준별 학습곤란 예: 웹디자인과정이 기초~심화까지 단일과정으로 편성	•다양한 훈련기관 -본인에게 적합한 단기과정들을 조합 하여 수강→개인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가능 예:웹디자인과정은 ①IT기초,②포토 샵,③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세분화 가능 -사전 학습경험, 직장경력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심화과정 수강 가능
훈련비	•정부가 책정한 훈련비단가 적용 -훈련기간 장기화, 부실훈련 등 부작용	•훈련기관이 시장가격에 따라 책정

19) 노동부 정책정보,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008, p.6

	용	
상담 등 지원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 서비스 미흡	-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발급시 상담 강화(필수사항) -상담을 거쳐 계좌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훈련 수강분야를 협의 결정
훈련정보 제공	-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 - 훈련생 평가기능 없음	-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 과정 수강 후 훈련생 평가 의무화
훈련과정 승인	- 지방노동관서별로 분산 승인 -현장전문가 참여 미흡	- 중앙 집중형으로 심사. 승인 -분야별 현장전문가가 심사
고용지원 센터역할	훈련기관 관리에 초점	훈련생 지원에 초점



제 3 장 연구의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실업자 무료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 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론적 고찰과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실업자 무료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교육을 받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실태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4. 교육수료 후 만족도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5. 각 교육제도의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알아본다.

제 2 절 측정도구

본 연구는 미용 교육기관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위하여 실업자 무료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직업훈련 이용자의 표본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여부 등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과 실업자교육과 계좌제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어느 쪽의 교육이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설문지의 구성

연구변수	측정항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직업별	5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형태별의 이용행동과 행동에 따른 차이,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형태에 따른 이용행동에 차이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시 정보원, 고려사항, 훈련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간에 대한 견해, 미용근무기간 여부, 교육지원동기, 기대되는 미용교육의 도움, 미용교육기관의 시설 및 재료 여부, 교육기관의 교육생인원, 교재, 교육내용, 이론과 실기수업의 연계성, 미용교육기관의 중도포기 이유,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후 미용과에 대한 필요사항, 미용기관 추천의사, 교육수료 후 진로, 관심 있는 미용직업,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여부, 수료 후 취업가능성,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29

제 3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인, 주부, 서비스, 자영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직업훈련 이용자 130명, 실업자 직업훈련 이용자 99명,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직업훈련과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를 둘 다 이용한 78명으로 총 307명을 대상으로 미용 교육 기관을 통해 국비무료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교육을 받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0년 8월 30일~9월1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총 3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불충분한 43부를 제외한 총 307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제 4 절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6.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6.0, SPSS Inc., Illinois,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국비지원 미용직업훈련기관의 형태별로 이용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국비지원 미용직업훈련기관의 형태에 따른 이용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test)를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직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남자가 2%, 여자가 98%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계좌제교육의 경우도 남자가 6.2%, 여자가 93.8%로 높게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7%, 여자가 91%로 나타나 두 교육 모두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35~39세가 24.2%로 가장 높았고 30~34세(22.2%), 20~24세(12.1%), 40~44세(12.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도 35~39세가 23.8%로 가장 높았고, 25~29세(23.3%), 40~44세(16.9%), 30~34세(14.6%) 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해본 경우는 30~34세(30.8%)가 가장 높았고 25~29세(21.8%), 40~44세(20.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20세 미만이 1.6%로 가장 많았으며, 35세~39세가 2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졸업(20.2%), 대학교 졸업(15.2%)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이 52.3%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졸업(26.2%), 대학교 졸업(16.2%)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졸업(39.7%), 대학교 졸업(6.4%)순으로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이 5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지원 교육수강 이전의 직업으로는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전업주부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직(26.3%), 사무직(18.2%)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국비무료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업주부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직(22.3%), 사무직(14.6%) 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전업주부가 37.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33.3%), 사무직(14.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전업주부가 전체의 3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성별이나 연령별의 분포도와도 상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자	2	2.0	8	6.2	7	9.0	17	5.5
	여자	97	98.0	122	93.8	71	91.0	290	94.5
	합계	99	100.0	130	100.0	78	100.0	307	100.0
연세	20세 미만	2	2.0	2	1.5	1	1.3	5	1.6
	20세~24세	12	12.1	13	10.0	2	2.6	27	8.8
	25세~29세	13	13.1	29	22.3	17	21.8	59	19.2
	30세~34세	22	22.2	19	14.6	24	30.8	65	21.2
	35세~39세	24	24.2	31	23.8	16	20.5	71	23.1
	40세~44세	12	12.1	22	16.9	12	15.4	46	15.0
	45세~49세	7	7.1	5	3.8	5	6.4	17	5.5
	50세 이상	7	7.1	9	6.9	1	1.3	17	5.5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4.0	1	0.8	1	1.3	6	2.0
	고등학교 졸업	56	56.6	68	52.3	39	50.0	163	53.1
	전문대학 졸업	20	20.2	34	26.2	31	39.7	85	27.7
	대학교 졸업	15	15.2	21	16.2	5	6.4	41	13.4
	기타	4	4.0	6	4.6	2	2.6	12	3.9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국비 지원 교육 수강 이전의 직업	학생	6	6.1	9	6.9	5	6.4	20	6.5
	전업주부	31	31.3	41	31.5	29	37.2	101	32.9
	자영업	5	5.1	10	7.7	3	3.8	18	5.9
	사무직	18	18.2	19	14.6	5	6.4	42	13.7
	영업직	1	1.0	6	4.6	1	1.3	8	2.6
	서비스직	26	26.3	29	22.3	26	33.3	81	26.4
	기타	12	12.1	16	12.3	9	11.5	37	12.1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제 2 절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이용행동

1.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정보원

훈련생들이 미용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는 아래의 [표 7]에서 보듯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가 48.5%로 가장 많았고 직업기관의 소개가 16.2%, 신문광고(12.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서가 50.8%로 가장 많았고 직업기관의 소개가 21.5%, 신문광고(7.7%)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가 50.5%로 가장 많았고 직업기관의 소개가 21.5%, 신문광고(7.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가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직업알선기관의 소개가 20.2% , 기타 17.6%,신문광고를 보고가 12.1%, TV광고를 보고가 0.3%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의 홍보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직업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기 전에 각 지역별 직업안정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직업안정센터에서도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 재동(2003)은 이러한 홍보부족은 이를 담당하는 자가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²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기 전에 각 지역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훈련기관에 들어오는 비율보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보고오는 경우가 더 많아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노동부나 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직업알선기관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담당자들이 더욱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20) 김재동,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76

[표 7]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정보원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TV 광고를 보고	1	1.0	0	0.0	0	0.0	1	0.3
라디오 광고를 보고	0	0.0	0	0.0	0	0.0	0	0.0
신문 광고를 보고	12	12.1	10	7.7	15	19.2	37	12.1
인터넷을 통해	48	48.5	66	50.8	39	50.0	153	49.8
직업알선기관의 소개로 (노동부 지방사무소, 시군구 직업알선기관, 인력은행, 채 용박람회 등)	16	16.2	28	21.5	18	23.1	62	20.2
기타	22	22.2	26	20.0	6	7.7	54	17.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기관의 인지도가 26.3%로 가장 많았고 기관의 평가등급(15.2%), 주변사람들의 평가(15.2%), 기관의 지원비용(15.2%) 순으로 나타났다[표 8].

계좌제 교육의 경우는 기관의 위치가 27.7%로 가장 높았고 주변사람들의 평가(18.5%), 기관의 인지도(16.9%), 훈련장비 및 시설(11.5%)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기관의 인지도가 25.6%로 가장 높았고 주변사람들의 평가(24.4%), 기관의 위치(19.2%), 훈련장비 및 시설(9.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기관의 인지도가 22.1%로 기관선택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관의 위치 20.8%, 주변사람들의 평가 18.9%, 기관의 평가등급 10.7% 기관의 지원비용 9.4%, 교사의 자질 5.2%, 기타 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한 개 이상의 수강이 가

능하기 때문에 기관의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서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미용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기관의 인지도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으며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기관의 인지도	26	26.3	22	16.9	20	25.6	68	22.1
기관의 평가등급	15	15.2	12	9.2	6	7.7	33	10.7
주변 사람들의 평가	15	15.2	24	18.5	19	24.4	58	18.9
교사의 자질	4	4.0	8	6.2	4	5.1	16	5.2
훈련장비 및 시설	6	6.1	15	11.5	7	9.0	28	9.1
기관의 위치	13	13.1	36	27.7	15	19.2	64	20.8
기관의 지원비용	15	15.2	8	6.2	6	7.7	29	9.4
기타	5	5.1	5	3.8	1	1.3	11	3.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3.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기간

현재 직업교육의 기간을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5개월이라는 비율이 76.8%가 가장 많았고 4개월(15.2%), 3개월(4.0%)순으로 나타났다[표 9]. 계좌제 교육의 경우는 2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개월(37.7%), 5개월(8.5%)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는 3개월이 42.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개월(17.9%), 5개월(17.9%)로 같았고 4개월(16.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개월의 기간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개월 28.0%, 2개월 24.4%, 4개월 11.1%, 기타 3.6%순으로 나타났다. 5개월의 기간이 많이 나온 것은 국비무료 교육의 5개월 빈도수가 높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9]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기간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2개월	1	1.0	60	46.2	14	17.9	75	24.4
3개월	4	4.0	49	37.7	33	42.3	86	28.0
4개월	15	15.2	6	4.6	13	16.7	34	11.1
5개월	76	76.8	11	8.5	14	17.9	101	32.9
기타	3	3.0	4	3.1	4	5.1	11	3.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4.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

현재 직업교육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100일~120일의 비율이 4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80일~100일(28.3%), 기타(12.1%), 60일~80일(9.1%)순으로 나타났고 계좌제 교육의 경우 60일~80일이 24.6%로 가장 많았고 80일~100일(23.8%), 100일~120일(21.5%), 40일~60일(19.2%)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는 60일~80일이 33.3%로 가장 많았고 80일~100일(29.5%), 100일~120일(16.7%), 40일~60일(11.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00일~120일의 기간이 28.7%로 가장 적절하게 생각된다고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80일~100일의 기간이 26.7%, 60일~80일이 21.8%, 40일~60일이 12.1%, 기타 6.8%, 20일~40일이 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20일~40일	0	0.0	9	6.9	3	3.8	12	3.9
40일~60일	3	3.0	25	19.2	9	11.5	37	12.1
60일~80일	9	9.1	32	24.6	26	33.3	67	21.8
80일~100일	28	28.3	31	23.8	23	29.5	82	26.7
100일~120일	47	47.5	28	21.5	13	16.7	88	28.7
기타	12	12.1	5	3.8	4	5.1	21	6.8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5. 1일 교육시간

1일 교육시간으로는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6시간~8시간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시간~4시간(18.2%), 4시간~6시간(13.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의 경우 4시간~6시간이 40.8%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시간~4시간(37.7%), 6시간~8시간(20.2%)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는 2시간~4시간이 44.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시간~6시간(38.5%), 6시간~8시간(12.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시간~4시간이 33.2%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표 11].

[표 11] 1일 교육시간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2시간 이하	2	2.0	2	1.5	0	0.0	4	1.3
2시간~4시간	18	18.2	49	37.7	35	44.9	102	33.2
4시간~6시간	13	13.1	53	40.8	30	38.5	96	31.3
6시간~8시간	58	58.6	26	20.0	10	12.8	94	30.6
8시간 이상	8	8.1	0	0.0	3	3.8	11	3.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6. 적절한 1일 교육시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1일 교육시간은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4시간~6시간이 51.5%가 적절하다고 했으며, 계좌제의 경우도 46.2%가 4시간~6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나타났고 둘 다 이용의 경우도 4시간~6시간이 62.8%가 가장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도 4시간~6시간이 52.1%가 적절하다고 나타났다[표 12].

이러한 결과로 국비무료 교육에 비해 계좌제 교육이 교육기간이나 1일 교육시간이 전반적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적절한 1일 교육시간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2시간 이하	1	1.0	2	1.5	0	0.0	3	1.0
2시간~4시간	14	14.1	46	35.4	20	25.6	80	26.1
4시간~6시간	51	51.5	60	46.2	49	62.8	160	52.1
6시간~8시간	30	30.3	19	14.6	8	10.3	57	18.6
8시간 이상	3	3.0	3	2.3	1	1.3	7	2.3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7.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훈련기간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알아본 경우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71.1%로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계좌제 교육도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다. 둘 다 이용의 경우도 65.4%가 현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표 13].

[표 13]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현재에 만족한다	71	71.7	81	62.3	51	65.4	203	66.1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훈련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12	12.1	36	27.7	26	33.3	74	24.1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므로, 훈련시간을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	16	16.2	13	10.0	1	1.3	30	9.8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8.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로는 국비 무료교육의 경우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19.2%),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13.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국비 무료교육

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22.3%),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5.4%),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5.4%)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26.9%),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5.1%)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1%, 잘 모르겠다 22.5%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자율권을 주면 안된다	13	13.1	7	5.4	4	5.1	24	7.8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67	67.7	87	66.9	52	66.7	206	67.1
매우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0	0.0	7	5.4	1	1.3	8	2.6
잘 모르겠다	19	19.2	29	22.3	21	26.9	69	22.5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9. 미용분야 근무기간

훈련생들의 미용분야의 근무기간을 보면 국비 무료교육의 경우 미용분야의 근무경력이 없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미만(9.1%), 1년이상~2년미만과 2년이상~3년미만(6.1%)으로 같게 나왔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미용분야의 근무경력이 없다는 비율이 70.0%로 가장 많았고 1년미만(9.1%), 1년이상~2년미만(9.2%), 2년이상~3년미만(6.2%)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미용분야의 근무경력이 없다는 비율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년이상~3년미만(20.5%), 1년미만(19.2%), 3년이상~4년미만(11.5%)순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없는 빈도가 전체의 63.5%로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없

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이러한 결과는 교육생들의 대다수가 실무 위주의 교육생들 보다는 전직 다른 직종에서 미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 미용분야 근무기간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미용분야의 근무경력 없음	75	75.8	91	70.0	29	37.2	195	63.5
1년 미만	9	9.1	12	9.2	15	19.2	36	11.7
1년 이상~2년 미만	6	6.1	8	6.2	16	20.5	30	9.8
2년 이상~3년 미만	6	6.1	7	5.4	9	11.5	22	7.2
3년 이상~4년 미만	0	0.0	4	3.1	3	3.8	7	2.3
4년 이상~5년 미만	3	3.0	2	1.5	4	5.1	9	2.9
5년 이상	0	0.0	6	4.6	2	2.6	8	2.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10.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 지원 동기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국비무료 교육의 경우 자영이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0.2%),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0.2%), 교육비가 안 들어서(14.1%), 자격증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11.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는 국비무료교육과 마찬가지로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가 43.1%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16.2%),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4.6%), 자격증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16.2%)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역시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가 43/6%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19.2%), 교육비가 안 들어서(15.4%),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4.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전체의 39.4%,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지원하였다는 경우가 1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높은 임금이 보장될 것 같아서라는 경우가 1.3%로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했다[표 16].

이 인희(2003)의 연구²¹⁾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미용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받기 전 지원동기를 보면 자영가능과 취업이 잘 될 거 같아서가 가장 많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생들이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임금보다는 안정적인 전문 직업을 갖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 자립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6]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 지원 동기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20	20.2	21	16.2	15	19.2	56	18.2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31	31.3	56	43.1	34	43.6	121	39.4
자격증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11	11.1	17	13.1	3	3.8	31	10.1
높은 임금이 보장될 것 같아서	0	0.0	3	2.3	1	1.3	4	1.3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	20.2	19	14.6	11	14.1	50	16.3
교육비가 안 들어서	14	14.1	9	6.9	12	15.4	35	11.4
기타	3	3.0	5	3.8	2	2.6	10	3.3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11. 기대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의 도움

훈련생이 자신이 선택한 교육훈련이 어떠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교육 후 취업(창업)

21) 이인희, 「직업전문학교 미용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76

과 직업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55.6%고 가장 많았고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응답과 취업이나 능력개발보다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욕을 가지게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2%로 나왔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교육 후 취업(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27.7%), 취업이나 능력개발보다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욕을 가지게 된다(15.4%)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계좌제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 후 취업(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41.0%), 취업이나 능력개발보다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욕을 가지게 된다 (14.1%)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후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경우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두 교육 모두 나타났다 [표 17].

[표 17] 기대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의 도움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교육 후 취업(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55	55.6	67	51.5	33	42.3	155	50.5
새로운 기술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	20.2	36	27.7	32	41.0	88	28.7
취업이나 능력개발보다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욕을 가지게 한다	20	20.2	20	15.4	11	14.1	51	16.6
잘 모르겠다	4	4.0	7	5.4	2	2.6	13	4.2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12.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재료)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족하다(24.2%), 대체로 많다(4.0%)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족하다(22.3%), 대체로 많다(6.9%)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족하다(24.4%), 매우 부족하다(7.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대체로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7.8%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두 교육 모두 적당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이인희(2003)의 직업전문학교 미용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생들이 무료교육에 의존하는데 따른 예로사항으로 실습재료의 부족에 따른 확충을 요구했다²²⁾고 주장했으며 국비무료 교육과 계좌제 교육 모두 시설 및 장비에 따른 교육에 대한 훈련비 책정에 더욱 신경을 써 교육실습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18]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재료)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부족하다	2	2.0	7	5.4	6	7.7	8	4.5
대체로 부족하다	24	24.2	29	22.3	19	24.4	43	24.3
적당하다	68	68.7	84	64.6	52	66.7	120	67.8
대체로 많다	4	4.0	9	6.9	1	1.3	5	2.8
매우 많다	1	1.0	1	0.8	0	0.0	1	0.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13.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훈련인원

훈련과정의 훈련인원에 대한 응답은 국비 무료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22) 이인희, 전계논문, p.53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20.3%), 적은편이다(5.4%)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13.8%), 적은편이다(5.4%)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는 의견이 37.2%로 나타났다. 훈련기관의 인원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적당하다는 응답이 53.7%,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43.5%로 나타났다[표 19].

[표 19]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훈련인원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적다	0	0.0	2	1.5	0	0.0	0	0.0
적은 편이다	1	1.0	7	5.4	1	1.3	2	1.1
적당하다	66	66.7	103	79.2	29	37.2	95	53.7
많은 편이다	30	30.3	18	13.8	47	60.3	77	43.5
지나치게 많다	2	2.0	0	0.0	1	1.3	3	1.7
합계	99	100.0	130	100.0	78	100.0	177	100.0

14.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교재

훈련과정의 교재의 경우 국비무료 교육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스럽다(33.3%)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40.8%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25.6%), 대체로 만족스럽다(24.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보통이라는 경우가 46.9%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경우도 29.4%로 나타났다[표 20]

[표 20]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교재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6	6.1	4	3.1	2	2.6	8	4.5
만족스럽지 못하다	7	7.1	9	6.9	20	25.6	27	15.3
보통이다	49	49.5	58	44.6	34	43.6	83	46.9
대체로 만족스럽다	33	33.3	53	40.8	19	24.4	52	29.4
매우 만족스럽다	4	4.0	6	4.6	3	3.8	7	4.0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15.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기대대비 교육내용

훈련교육에 대한 기대치로는 국비무료 교육의 경우 비교적 좋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고 기대하는 바와 같다(25.3%), 기대이상으로 좋다(20.2%)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도 국비 무료교육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대하는 바와 같다(28.5%), 기대 이상으로 좋다(13.8%)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비교적 좋다는 의견이 59.0%로 가장 많았고 기대이상으로 좋다(19.2%), 기대하는 바와 같다(16.7%)순으로 나타났다[표 21].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비교적 좋다는 기대이상으로 좋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과정에 있어 자격증 시험의 교육위주의 교육과 더불어 자격시험의 부담이 없다면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현장과 연결되는 교육들을 좀 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21]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교육내용 기대치 비교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0	0.0	1	0.8	2	2.6	2	1.1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6	6.1	15	11.5	2	2.6	8	4.5
기대하는 바와 같다	25	25.3	37	28.5	13	16.7	38	21.5
비교적 좋다	48	48.5	59	45.4	46	59.0	94	53.1
기대이상으로 좋다	20	20.2	18	13.8	15	19.2	35	19.8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16.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이론수업 내용(수준)

훈련교육의 이론수업에 관한 내용 수준면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어렵다(25.3%), 매우 어렵다(3.0%)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어렵다(19.2%), 약간 쉽다(7.7%)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았고 약간 어렵다(14.1%), 매우 어렵다(5.1%)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두 교육 모두 이론수업내용이 71.8%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2].

[표 22]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이론수업 내용(수준)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어렵다	3	3.0	4	3.1	4	5.1	7	4.0
약간 어렵다	25	25.3	25	19.2	11	14.1	36	20.3
적당하다	68	68.7	89	68.5	59	75.6	127	71.8
약간 쉽다	2	2.0	10	7.7	2	2.6	4	2.3
매우 쉽다	1	1.0	2	1.5	2	2.6	3	1.7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17.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실기수업 내용(수준)

훈련교육의 실기수업에 관한 내용 수준면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비 무료교육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어렵다(30.3%), 매우 어렵다(6.1%)순으로 나타났다[표 23].

계좌제 교육의 경우 국비무료교육과 마찬가지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어렵다(25.4%), 매우 어렵다(5.4%)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어렵다(15.4%), 매우 어렵다(7.7%)순으로 나타났다. 실기 수업내용의 경우 이론수업과 마찬가지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5%로 나타났다. 즉, 교육훈련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이론 및 실기 과목의 내용을 보강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23]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실기수업 내용(수준)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어렵다	6	6.1	7	5.4	6	7.7	12	6.8
약간 어렵다	30	30.3	33	25.4	12	15.4	42	23.7
적당하다	60	60.6	83	63.8	56	71.8	116	65.5
약간 쉽다	2	2.0	4	3.1	3	3.8	5	2.8
매우 쉽다	1	1.0	3	2.3	1	1.3	2	1.1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18.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의 연계성

훈련교육의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의 연계성을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23.2%)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보통이다(33.8%), 약간 분리된 느낌이다(15.4%)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서로 연결 되어있다(57.7%), 보통이다(20.5%), 약간 분리된 느낌이다(11.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다(59.3%)는 응답이 가장 높게 타나났고 그다음으로 보통이다(22.0%)는 응답으로 나타났다[표 24].

미용교육의 이론과 실기수업의 연계성에서 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론과 수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미나(2004)의 연구²³⁾에 의하면 미용의 각 전공 분야별 관련 주변 학문의 폭넓은 개설과 분야의 전문 교재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며 미용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기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수업이 이

23) 김미아, 「미용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방안」,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향장미용학 석사학위 논문, 2004, p.39

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24]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의 연계성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	3	3.0	0	0.0	0	0.0	3	1.7
약간 분리된 느낌이다	7	7.1	20	15.4	9	11.5	16	9.0
보통이다	23	23.2	44	33.8	16	20.5	39	22.0
서로 연결되어 있다	60	60.6	50	38.5	45	57.7	105	59.3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6	6.1	16	12.3	8	10.3	14	7.9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19.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중도 포기 의사

훈련과정에서 수료를 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중도포기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도포기를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73.7%로 많았고 있다는 응답이 26.3%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 중도포기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5.4%로 나타났고 있다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없다는 응답이 61.5%, 있다는 응답이 38.5%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교육 중 중도포기 의사가 없다(68.4%), 있다(31.6%)로 나타났다[표 25].

[표 25]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중도 포기 의사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없다	73	73.7	98	75.4	48	61.5	121	68.4
있다	26	26.3	32	24.6	30	38.5	56	31.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177	100

20.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도포기 이유를 살펴보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가 34.5%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19.2%), 자녀의 보육문제 때문에(15.4%)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는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25.0%), 기타(18.8%)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의 경우 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훈련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20.0%),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16.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가 37.5%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17.9%), 교육훈련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0.9%)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김 태훈(2009)의 연구에 의하면²⁴⁾ 훈련생이 이유 없이 중도 탈락 할 경우 그동안의 훈련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여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훈련기관은 훈련 직종별 일정 수준의 훈련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의 품질과 훈련성과를 확보하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 선미(2000)는²⁵⁾ 가족의 생계비를 담당하는 주 소득원은 교육훈련생의 대다수가 기혼인 관계로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나 교육생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

24) 김태훈, 전계논문, p.88

25) 김선미, 「여성 실업자의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37

해 이는 상당수가 교육 참여 생들이 배우자의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생계비를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	19.2	12	37.5	5	16.7	10	17.9
교육훈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0	0.0	4	12.5	6	20.0	6	10.7
동료 간의 불화 때문에	0	0.0	0	0.0	1	3.3	1	1.8
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0	0.0	0	0.0	1	3.3	1	1.8
불투명한 취업 전망 때문에	3	11.5	1	3.1	1	3.3	4	7.1
가족의 반대 때문에	1	3.8	0	0.0	0	0.0	1	1.8
통학 거리가 멀어서	1	3.8	0	0.0	0	0.0	1	1.8
자녀의 보육문제 때문에	4	15.4	0	0.0	0	0.0	4	7.1
가사(집안일) 때문에	0	0.0	1	3.1	1	3.3	1	1.8
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	9	34.6	8	25.0	12	40.0	21	37.5
기타	3	11.5	6	18.8	3	10.0	6	10.7
합계	26	100	32	100	30	100	56	100

21.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재 미용에 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대체로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29.3%), 대체로 나쁜 편이다(14.1%), 매우 좋은 편이다(8.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좋은 편이다(38.5%), 대체로 나쁜 편이다(10.0%)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대체로 좋은 편이다(47.4%), 보통이다(46.2%), 대체로 나쁜 편이다(3.8%), 매우 좋은 편이다(2.6%)순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좋다는 의견(44.0%)과 보통의 의견(40.7%)이 40%이상을 차지 하므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표 27].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향상은 자연스럽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신체의 욕구뿐만 아니라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증가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재 외모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산업도 크게 확산되어 피부미용과 같은 외모와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앞으로도 기대와 관심이 증가되어 미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날로 관심이 높아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 27]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나쁜 편이다	0	0.0	0	0.0	0	0.0	0	0.0
대체로 나쁜 편이다	14	14.1	13	10.0	3	3.8	30	9.8
보통이다	29	29.3	60	46.2	36	46.2	125	40.7
대체로 좋은 편이다	48	48.5	50	38.5	37	47.4	135	44.0
매우 좋은 편이다	8	8.1	7	5.4	2	2.6	17	5.5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2. 향후 미용과에 필요한 사항

미래 지향적 미용을 위한 필요한 항목이 어떠한가를 알아본 분석결과에서는 국비 무료교육의 경우 전공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현장 근무자로부터의 산학협동교육(35.4%),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19.2%)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좌제 교육의 경우는 현장 근무자로부터의 산학협동교육이 32.3%로 가장 많았고 전공의 세분화(30.0%),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25.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비율로 보았을 때 36.8%가 두 교육 모두 전공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빈도를 차지했고 현장 근무

자로부터의 산학협동교육이 전체적으로 30.3%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다[표 28].

이 병욱(2005)의 연구²⁶⁾에 의하면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동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을 위한 필요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필요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중에서도 교육을 위한 산학협동의 필요성으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이 겸비됨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학생에게 체득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인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²⁷⁾ 미용과의 전망에 필요한 항목으로 전체 55%가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세분화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28] 향후 미용과에 필요한 사항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전공의 세분화	38	38.4	39	30.0	36	46.2	113	36.8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	19	19.2	33	25.4	19	24.4	71	23.1
시설의 초 현대화	3	3.0	9	6.9	5	6.4	17	5.5
현장 근무자로부터의 산학협동교육	35	35.4	42	32.3	16	20.5	93	30.3
기타	4	4.0	7	5.4	2	2.6	13	4.2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3. 주변인들에게 미용교육기관 추천의사

직업교육훈련을 다른 친지나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타인에게 권유하고 싶은 편이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생각해 본적 없다(22.2%),

26) 이병욱, 『직업교육체제의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p.3

27) 이인희, 전개논문, p.58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18.2%), 권유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5.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의 경우도 국비무료교육과 마찬가지로 권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생각해 본적 없다(26.9%),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14.6%), 권유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6.2%)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도 권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고 생각해 본적 없다(25.6%),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16.7%), 권유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3.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타인에게 권유를 한다고 응답한 교육생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50%이상으로 긍정적으로 교육훈련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표 29].

[표 29] 주변인들에게 미용교육기관 추천의사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절대로 권유하고 싶지 않다	0	0.0	1	0.8	1	1.3	2	0.7
권유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5	5.1	8	6.2	3	3.8	16	5.2
권유하고 싶은 편이다	54	54.5	67	51.5	41	52.6	162	52.8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	18	18.2	19	14.6	13	16.7	50	16.3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2	22.2	35	26.9	20	25.6	77	25.1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4. 현재 미용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진로

교육생들의 미용교육과정 수료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을 한 결과,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42.4%가 곧바로 취업한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취업을 한 이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학(18.2%), 다른 기술을 배울 예정

(13.1%), 부업이나 자영업 예정(13.1%)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교육의 경우도 38.5%가 곧바로 취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업이나 자영업예정(20.8%), 다른 기술을 배울 예정(14.6%), 취업을 한 후 기회가 주어지면 진학(13.8%)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의 경우도 곧바로 취업이 39.7%로 가장 높았고 취업을 한 후 기회가 주어지면 진학(17.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곧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4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경우는 2.6%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었다[표 30].

[표 30] 현재 미용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진로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곧바로 취업	42	42.4	50	38.5	31	39.7	123	40.1
취업을 한 이후 기회가 주어지면 진학	18	18.2	18	13.8	14	17.9	50	16.3
부업이나 자영업 예정	12	12.1	27	20.8	19	24.4	58	18.9
다른 기술을 배울 예정	13	13.1	19	14.6	5	6.4	37	12.1
생활에서 활용	10	10.1	7	5.4	6	7.7	23	7.5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4	4.0	4	3.1	0	0.0	8	2.6
기타	0	0.0	5	3.8	3	3.8	8	2.6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5. 관심 있는 미용직업

현재 미용직업이 점차 전문화 및 세분화 되어 가는 경향으로 인해 훈련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해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헤어디자이너가 52.5%로 가장 많았고 메이크업전문가(23.2%), 피부관리사(15.2%)순으로 나타났

다. 계좌제교육의 경우 피부관리사가 41.5%로 가장 많았고 헤어디자이너(37.7%), 네일 관리사(10.8%)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우 헤어디자이너가 60.3%로 가장 많았고 피부관리사(21.8%), 메이크업전문가(10.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48.2%가 헤어 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28.0%가 피부관리사로 나타났다[표 31]. 미용은 현재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어 미용분야의 훈련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미용기능사 피부가 국가자격증으로 생기면서 헤어분야 다음으로 피부미용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표 31] 관심 있는 미용직업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헤어디자이너	52	52.5	49	37.7	47	60.3	148	48.2
피부관리사	15	15.2	54	41.5	17	21.8	86	28.0
메이크업전문가	23	23.2	6	4.6	8	10.3	37	12.1
네일관리사	3	3.0	14	10.8	3	3.8	20	6.5
기타	6	6.1	7	5.4	3	3.8	16	5.2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6.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개선사항과 수료 후 관리사항

세 가지 미용교육기관의 형태별로 개선사항과 수료 후의 관리사항을 알아본 결과는 [표 32]와 같았다.

먼저 개선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세 가지 미용직업훈련기관 중에서도 국비무료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58.2%)’, ‘교육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51.0%)’,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하다(전체 응

답자의 33.7%)’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계좌제 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국비무료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53.1%)’, ‘교육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37.7%)’,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29.2%)’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국비 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 둘 다를 이용하는 집단도 역시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71.1%)’, ‘교육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38.2%)’,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하다(전체 응답자의 14.5%)’ 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즉, 국비무료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과 교육훈련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고, 계좌제 교육이나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세 가지 미용직업훈련기관의 형태별로 수료 후의 관리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세 가지 미용직업훈련기관 중에서도 국비무료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관련분야에 재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60.6%),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45.5%), ‘훈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20.2%), ‘수료생 모임을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9.1%)로 관리사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계좌제 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국비무료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분야에 재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61.2%),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40.3%), ‘훈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15.5%), ‘수료생 모임을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9.3%)로 관리사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 둘 다를 이용하는 집단도 역시 ‘관련분야에 재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55.5%),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35.5%), ‘훈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31.2%), ‘수료생 모임을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6.5%)로 관리사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즉, 국비 무료교육, 계좌제 교육, 둘 다 이용 모두 관련분야에 재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개선사항과 수료 후 관리사항

개선사항과 수료 후 관리사항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응답	케이스		응답	케이스		응답	케이스		응답	케이스
개 선 사 항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57	37.5	58.2	69	38.5	53.1	54	50.5	71.1	180	41.1	59.2
	교육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교실실습, 현장실습 등과 같은 훈련방법)	50	32.9	51.0	49	27.4	37.7	29	27.1	38.2	128	29.2	42.1
	교육훈련교사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10	6.6	10.2	10	5.6	7.7	4	3.7	5.3	24	5.5	7.9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하다	33	21.7	33.7	38	21.2	29.2	11	10.3	14.5	82	18.7	27.0
	기타	2	1.3	2.0	13	7.3	10.0	9	8.4	11.8	24	5.5	7.9
	합계	152	100	155.1	179	100	137.7	107	100	140.8	438	100	144.1
수 료 후 관 리 사 항	관련분야에 재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60	43.8	60.6	79	46.5	61.2	43	41.7	55.8	182	44.4	59.7
	수료생 모임을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9	6.6	9.1	12	7.1	9.3	5	4.9	6.5	26	6.3	8.5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45	32.8	45.5	52	30.6	40.3	27	26.2	35.1	124	30.2	40.7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20	14.6	20.2	20	11.8	15.5	24	23.3	31.2	64	15.6	21.0
	기타	3	2.2	3.0	7	4.1	5.4	4	3.9	5.2	14	3.4	4.6
	합계	137	100	138.4	170	100	131.8	103	100	133.8	410	100	134.4

27.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 여부

미용교육기관의 상담 여부로는 두 교육 모두 전체적으로 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에 대해 82.1%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표 33].

[표 33]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 여부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아니오	15	15.2	34	26.2	6	7.7	55	17.9
예	84	84.8	96	73.8	72	92.3	252	82.1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28.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 수준

교육기관의 상담의 수준정도를 살펴보면 두 교육 모두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라고 39.3%로 응답했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32.5%로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표 34].

김 태훈(2009)의 연구²⁸⁾에 의하면 근로자의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상담이나 취업지도가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상담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절차에서 서류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하였고, 최 영숙(2009)의 연구²⁹⁾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계좌에의 경우 기대적인 효과로 훈련생에 대한 직업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하고 강화된 훈련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해 국비 무료교육과 계좌제의 경우 상담의 절차나 수준의 차이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28) 김태훈, 전계논문, p.43

29) 최영숙, 「직업능력개발법제의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5

[표 34]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 수준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	4.8	6	6.2	3	4.2	13	5.2
대체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2	26.2	16	16.7	14	19.4	52	20.6
그저 그렇다	29	34.5	42	43.8	28	38.9	99	39.3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27	32.1	28	29.2	27	37.5	82	32.5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2.4	4	4.2	0	0.0	6	2.4
합계	84	100.0	96	100.0	72	100.0	252	100.0

29. 현재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40.4%, 매우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순으로 두 교육 모두 교육 후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표 35] 현재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0	2	1.5	0	0.0	2	0.7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0	5	3.8	1	1.3	6	2.0
보통이다	17	17.2	33	25.4	10	12.8	60	19.5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37	37.4	51	39.2	36	46.2	124	40.4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45	45.5	39	30.0	31	39.7	115	37.5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30.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교육훈련 후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54.3%가 계좌제 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교육만을 받은 교육생인 경우 다른 한 가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고 둘 다 이용한 경우는 67.9%가 계좌제가 취업에 더 도움을 준다는 응답의 결과가 나타났다[표 36].

[표 36]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항목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전체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국비무료교육	79	79.8	35	26.9	25	32.1	139	45.3
계좌제교육	20	20.2	95	73.1	53	67.9	168	54.7
합계	99	100	130	100	78	100	307	100

제 3 절 국비지원 미용직업훈련기관 형태에 따른 이용행동

1. 현재 미용직업훈련교육의 교육기간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37]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교육기간 중에서도 5개월(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개월(44.1%)이 높게 나타났으며, 2개월(1.3%)이나 3개월(4.7%)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 집단과는 반대로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교육기간 중에서도 2개월(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개월(57.0%)이 높게 나타났으며, 4개월(17.6%)이나 5개월(10.9%)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교육기간 중에서도 3개월(38.4%)과 4개월(38.2%)이 높게 나타났고, 5개월(13.9%)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행 미용직업훈련교육 중에서도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비교적 길고,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의 교육기간이 그 다음으로 길며, 계좌제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7] 현재 미용직업 훈련교육의 교육 기간

현재 미용직업훈련교육의 교육기간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chi^2(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2개월	1	60	14	75	175.119*** (8)
	1.3%	80.0%	18.7%	100.0%	
	1.0%	46.2%	17.9%	24.4%	
3개월	4	49	33	86	
	4.7%	57.0%	38.4%	100.0%	
	4.0%	37.7%	42.3%	28.0%	
4개월	15	6	13	34	
	44.1%	17.6%	38.2%	100.0%	
	15.2%	4.6%	16.7%	11.1%	
5개월	76	11	14	101	
	75.2%	10.9%	13.9%	100.0%	
	76.8%	8.5%	17.9%	32.9%	
기타	3	4	4	11	
	27.3%	36.4%	36.4%	100.0%	
	3.0%	3.1%	5.1%	3.6%	
Column total(%)	99	130	78	307	
	32.2%	42.3%	25.4%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2. 현재 미용교육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38]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100일~120일(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80일~100일(34.1%)로 나타났고 60일~80일(13.4%)나타났으며, 40일~60일(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 집단과는 반대로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20일~40일(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일~60일(67.6%)로 나타났고 60일~80일(47.8%)로 나타났으며, 80일~100일(37.8%), 100일~120일(31.8%)로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60일~80일(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80일~100일(28.0%)로 나타났고 20일~40일

(25.0%)로 나타났고 40일~60일(24.3%)로 나타났으며, 100일~120일(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행 미용직업훈련교육 중에서도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100일~120일로 비교적 계좌제 교육에 비해 긴 교육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계좌제교육의 경우 20일~40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는 60~80일로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교육의 중간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두 교육의 특성상 적절하다고 하는 기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8] 현재 미용교육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

현재 미용직업훈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간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x ² (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20일~40일		9 75.0% 6.9%	3 25.0% 3.8%	12 100.0% 3.9%	56.938*** (10)
40일~60일	3 8.1% 3.0%	25 67.6% 19.2%	9 24.3% 11.5%	37 100.0% 12.1%	
60일~80일	9 13.4% 9.1%	32 47.8% 24.6%	26 38.8% 33.3%	67 100.0% 21.8%	
80일~100일	28 34.1% 28.3%	31 37.8% 23.8%	23 28.0% 29.5%	82 100.0% 26.7%	
100일~120일	47 53.4% 47.5%	28 31.8% 21.5%	13 14.8% 16.7%	88 100.0% 28.7%	
기타	12 57.1% 12.1%	5 23.8% 3.8%	4 19.0% 5.1%	21 100.0% 6.8%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P<.001

3. 1일 교육시간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1일 교육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39]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8시간이상(72.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6시간~8시간(61.7%)으로 나타났고 2시간 이하(50.0%)로 나타났으며, 2시간~4시간(17.6%)이나 4시간~6시간(13.5%)의 비율이 낮았다.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4시간~6시간(55.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시간~4시간(48.0%)으로 나타났으며, 6시간~8시간(27.7%)이 비율이 낮았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2시간~4시간(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4시간~6시간(31.2%)로 나타났으며, 8시간이상(27.3%)과 2시간 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현행 미용직업훈련교육 중에서도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1일 교육시간이 비교적 길고, 계좌제교육의 경우 1일 교육시간이 그 다음으로 길며,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의 1일 교육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 1일 교육시간

1일 교육시간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X ² (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 교육	둘 다 이용		
2시간 이하	2 50.0% 2.0%	2 50.0% 1.5%		4 100.0% 1.3%	76.038*** (8)
2시간~4시간	18 17.6% 18.2%	49 48.0% 37.7%	35 34.3% 44.9%	102 100.0% 33.2%	
4시간~6시간	13 13.5% 13.1%	53 55.2% 40.8%	30 31.2% 38.5%	96 100.0% 31.3%	
6시간~8시간	58 61.7% 58.6%	26 27.7% 20.0%	10 10.6% 12.8%	94 100.0% 30.6%	
8시간 이상	8 72.7% 8.1%		3 27.3% 3.8%	11 100.0% 3.6%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P<.001

4. 적절한 1일 교육시간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1일 교육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0]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6시간~8시간(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8시간 이상(42.9%)으로 나타났고 2시간 이하(33.3%)와 4시간~6시간(31.9%)으로 나타났으며, 2시간~4시간(17.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2시간 이하(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시간~4시간(57.5%)과 8시간이상(42.9%)으로 나타났고 4시간~6시간(37.5%)과 6시간~8시간(33.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4시간~6시간(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시간~4시간(25.0%)으로 나타났으며, 8시간

(14.3%)과 6시간~8시간(14.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행 미용직업훈련교육 중에서도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적절한 1일 교육시간이 비교적 길고,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교육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의 적절한 1일 교육시간이 그 다음으로 길며, 계좌제교육의 경우 적절한 1일 교육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0] 적절한 1일 교육시간

적절한 1일 교육시간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x ² (df)
	국비무료교육	계좌제교육	둘 다 이용		
2시간 이하	1 33.3% 1.0%	2 66.7% 1.5%		3 100.0% 1.0%	25.455** (8)
2시간~4시간	14 17.5% 14.1%	46 57.5% 35.4%	20 25.0% 25.6%	80 100.0% 26.1%	
4시간~6시간	51 31.9% 51.5%	60 37.5% 46.2%	49 30.6% 62.8%	160 100.0% 52.1%	
6시간~8시간	30 52.6% 30.3%	19 33.3% 14.6%	8 14.0% 10.3%	57 100.0% 18.6%	
8시간 이상	3 42.9% 3.0%	3 42.9% 2.3%	1 14.3% 1.3%	7 100.0% 2.3%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P<.01

5. 현재 미용교육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현재 미용훈련교육의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1]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므로 현재 보다 더 줄여야 한다(53.3%)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현재에 만족

한다(35.0%)로 나타났으며,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16.2%)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 집단과는 반대로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 보다 짧으므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48.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므로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43.3%)로 나타났으며, 현재에 만족한다(39.9%)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 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35.1%)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재에 만족한다(25.1%)고 나타났으며,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므로 훈련시간을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3.3%)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계좌제교육과 둘 다 이용의 경우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훈련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에 필요한 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국비무료 교육 교육시간이 계좌제교육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 현재 미용교육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현재 미용직업훈련교육의 기간에 대한 견해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x ² (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현재에 만족 한다	71 35.0% 71.7%	81 39.9% 62.3%	51 25.1% 65.4%	203 100.0% 66.1%	20.006*** (4)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 간보다 짧으므로, 훈련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 려야 한다	12 16.2% 12.1%	36 48.6% 27.7%	26 35.1% 33.3%	74 100.0% 24.1%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 간보다 길므로, 훈련시 간을 현재보다 더 줄여 야 한다	16 53.3% 16.2%	13 43.3% 10.0%	1 3.3% 1.3%	30 100.0% 9.8%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P<.001

6.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미용직업훈련기간의 교육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5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32.5%)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27.5%)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 집단과는 반대로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매우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87.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42.2%)와 잘 모르겠다(42.2%)로 나타났으며,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 다 이용의 경우 잘 모르겠다(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25.2%)로 나타났으며 자율권을 주면 안 된다(16.7%)와 매우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1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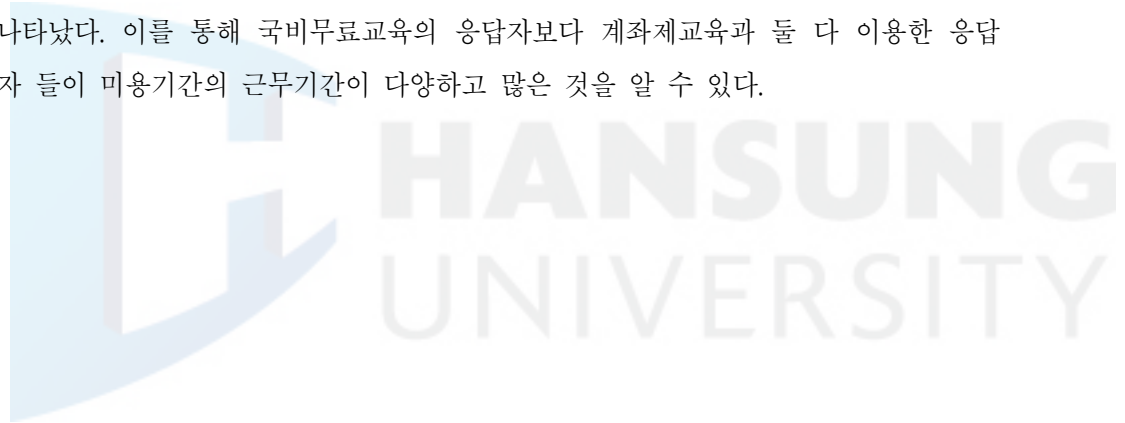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 설정 자율권에 대한 견해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chi^2(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자율권을 주면 안된다	13 54.2% 13.1%	7 29.2% 5.4%	4 16.7% 5.1%	24 100.0% 7.8%	13.409* (6)
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67 32.5% 67.7%	87 42.2% 66.9%	52 25.2% 66.7%	206 100.0% 67.1%	
매우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7 87.5% 5.4%	1 12.5% 1.3%	8 100.0% 2.6%	
잘 모르겠다	19 27.5% 19.2%	29 42.0% 22.3%	21 30.4% 26.9%	69 100.0% 22.5%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 $P<.05$

7. 미용분야 근무기간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교육생들의 '미용분야에 대한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3]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미용분야의 근무경력 없음(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년 이상~3년 미만(27.3%)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25.0%)과 1년 이상~2년 미만(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5년 이상(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3년 이상~4년 미만(57.1%)으로 나타났고 미용분야의 근무경력 없음(46.7%)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33.3%)과 2년 이상~3년 미만(31.8%)이 그다음으로 나타났고 4년 이상~5년 미만(22.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5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4년 이상~5년 미만(44.4%)로 높게 나타났고 3년 이상~4년 미만(42.9%), 1년 미만(41.7%), 2년 이상~3년 미만(40.9%), 5년 이상(25%)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용분야의 근무경력 없음(1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비무료교육의 응답자보다 계좌제교육과 둘 다 이용한 응답자 들이 미용기간의 근무기간이 다양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미용분야 근무기간

미용분야 근무기간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chi^2(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미용분야의 근무경력 없음	75 38.5% 75.8%	91 46.7% 70.0%	29 14.9% 37.2%	195 100.0% 63.5%	42.108*** (12)
1년 미만	9 25.0% 9.1%	12 33.3% 9.2%	15 41.7% 19.2%	36 100.0% 11.7%	
1년 이상~2년 미만	6 20.0% 6.1%	8 26.7% 6.2%	16 53.3% 20.5%	30 100.0% 9.8%	
2년 이상~3년 미만	6 27.3% 6.1%	7 31.8% 5.4%	9 40.9% 11.5%	22 100.0% 7.2%	
3년 이상~4년 미만		4 57.1% 3.1%	3 42.9% 3.8%	7 100.0% 2.3%	
4년 이상~5년 미만	3 33.3% 3.0%	2 22.2% 1.5%	4 44.4% 5.1%	9 100.0% 2.9%	
5년 이상		6 75.0% 4.6%	2 25.0% 2.6%	8 100.0% 2.6%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P<.001

8.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는 지 알아본 결과, [표 44]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매우 좋은 편이다(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체로 나쁜 편이다(46.7%)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좋은 편이다(35.6%)와 보통이다(23.2%)가 낮게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보통이다(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체로 나쁜 편이다(43.3%)로 나타났으며, 매우 좋은 편이다(41.2%)와 대체로 좋은 편이다(37.0%)가 낮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계좌제와 마찬가지로 보통이다(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대체로 좋은 편이다(27.4%)로 나타났으며, 매우 좋은 편이다(11.8%)와 대체로 나쁜 편이다(10.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4]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chi^2(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대체로 나쁜 편이다	14	13	3	30	13.404* (6)
	46.7%	43.3%	10.0%	100.0%	
	14.1%	10.0%	3.8%	9.8%	
보통이다	29	60	36	125	
	23.2%	48.0%	28.8%	100.0%	
	29.3%	46.2%	46.2%	40.7%	
대체로 좋은 편이다	48	50	37	135	
	35.6%	37.0%	27.4%	100.0%	
	48.5%	38.5%	47.4%	44.0%	
매우 좋은 편이다	8	7	2	17	
	47.1%	41.2%	11.8%	100.0%	
	8.1%	5.4%	2.6%	5.5%	
Column total(%)	99	130	78	307	
	32.2%	42.3%	25.4%	100.0%	
	100.0%	100.0%	100.0%	100.0%	

* $P<.05$

9. 관심 있는 미용직업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관심 있는 미용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표 45]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관심 있는 미용 직업이 메이크업 전문가(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37.5%), 헤어디자이너(35.1%), 피부관리사(17.4%), 네일 관리사(15.0%)순으로 나타났다.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관심 있는 미용직업이 네일관리사(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피부관리사(62.8%), 기타(43.8%), 헤어디자이너(33.1%), 메이크업전문가(16.2%)순으로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관심 있는 미용직업이 헤어디자이너(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전문가(21.6%), 피부관리사(19.8%) 기타(18.8%), 네일 관리사(15.0%)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관심 있는 미용직업

관심 있는 미용직업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chi^2(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 교육	둘 다 이용		
헤어디자이너	52	49	47	148	44.301*** (8)
	35.1%	33.1%	31.8%	100.0%	
	52.5%	37.7%	60.3%	48.2%	
피부관리사	15	54	17	86	
	17.4%	62.8%	19.8%	100.0%	
	15.2%	41.5%	21.8%	28.0%	
메이크업전문가	23	6	8	37	
	62.2%	16.2%	21.6%	100.0%	
	23.2%	4.6%	10.3%	12.1%	
네일관리사	3	14	3	20	
	15.0%	70.0%	15.0%	100.0%	
	3.0%	10.8%	3.8%	6.5%	
기타	6	7	3	16	
	37.5%	43.8%	18.8%	100.0%	
	6.1%	5.4%	3.8%	5.2%	
Column total(%)	99	130	78	307	
	32.2%	42.3%	25.4%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1$

10.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상담 여부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상담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6]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33.3%)이 없다는 비율(27.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 집단과는 반대로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상담을 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61.8%)이 있다는 비율(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28.6%)이 없다는 비율(1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비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소속 학생에게 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고 계좌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 소속 미용교육기관의 상담 여부

소속 미용직업훈련기관의 상담(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 여부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chi^2(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아니오	15	34	6	55	12.058** (2)
	27.3%	61.8%	10.9%	100.0%	
	15.2%	26.2%	7.7%	17.9%	
예	84	96	72	252	
	33.3%	38.1%	28.6%	100.0%	
	84.8%	73.8%	92.3%	82.1%	
Column total(%)	99	130	78	307	
	32.2%	42.3%	25.4%	100.0%	
	100.0%	100.0%	100.0%	100.0%	

** $P<.01$

11. 현재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현재 미용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47]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매우도움이 될 것이다(39.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29.8%) 보통이다(28.3%)의 순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계좌제교육의 집단의 경우 보통이다(55.0%)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41.1%)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3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29.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27.0%)로 나타났고 보통이다(16.7%)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6.7%)의 응답이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좌제 훈련과 기존 실업자훈련 참여자간의 비교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존 실업자훈련보다 계좌제 훈련이 훈련내용의 취업유용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 훈련을 모두 경험한 자에 의한 훈련간의 비교로도 기존의 실업자훈련보다 계좌제 훈련이 훈련내용의 취업유용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현재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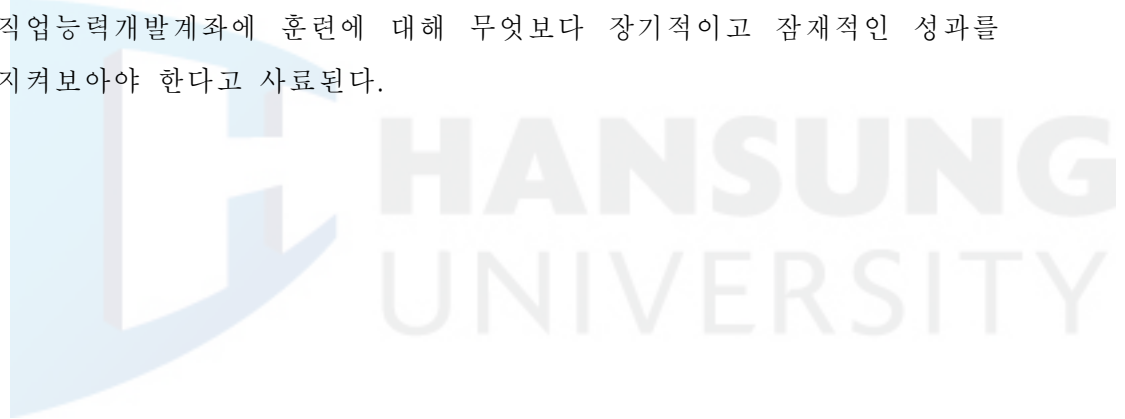
현재 미용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χ^2 (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 교육	둘 다 이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100.0% 1.5%		2 100.0% 0.7%	16.214* (8)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83.3% 3.8%	1 16.7% 1.3%	6 100.0% 2.0%	
보통이다	17 28.3% 17.2%	33 55.0% 25.4%	10 16.7% 12.8%	60 100.0% 19.5%	
약간의 도움이 될 것 이다	37 29.8% 37.4%	51 41.1% 39.2%	36 29.0% 46.2%	124 100.0% 40.4%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45 39.1% 45.5%	39 33.9% 30.0%	31 27.0% 39.7%	115 100.0% 37.5%	
Column total(%)	99 32.2% 100.0%	130 42.3% 100.0%	78 25.4% 100.0%	307 100.0% 100.0%	

*P<.05

12.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세 가지 교육훈련경로에 따라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48]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국비무료교육 집단의 경우 56.8%가 국비 무료교육의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계좌제 교육 집단의 경우 56.5%가 계좌제 교육이 국비무료교육보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31.5%가 계좌제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국비무료교육의 경우 18.0%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에 그래도 계좌제 교육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안 정연(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미용훈련분야를 중심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직업 훈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실업자 교육과 더불어 새로이 시행된 직업능력개발계좌에 훈련에 대해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성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48]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	교육훈련경로			Row total(%)	X ² (df)
	국비무료 교육	계좌제교 육	둘 다 이용		
국비무료교육	79	35	25	139	70.798 ^{***} (2)
	56.8%	25.2%	18.0%	100.0%	
	79.8%	26.9%	32.1%	45.3%	
계좌제 교육	20	95	53	168	
	11.9%	56.5%	31.5%	100.0%	
	20.2%	73.1%	67.9%	54.7%	
Column total(%)	99	130	78	307	
	32.2%	42.3%	25.4%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실업자 교육제도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제도 안에서 미용분야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의 교육방법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교육방법이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이용행동을 살펴보면, 현재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은 계좌제 교육보다 국비지원의 교육기간이 더 길었으며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교육시간은 국비무료교육은 국비무료교육의 1일 교육시간이 비교적 길고 계좌제 교육의 경우 국비무료교육보다 짧다고 나타났다.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좋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느끼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여부는 모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직업상담이나 취업전망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에 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는 교육은 계좌제 교육이 국비무료교육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했다.

2010년에는 실업자 훈련 총 예산의 70%내외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운영하고 2011년부터는 동훈련의 100%를 계좌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용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에 있어 2010년 7월 15일 이후로 미용의 경우 훈련비의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토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훈련과정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목적·내용·시기에 대한 근로자 주도적인 결정과 선택은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에 대해 참여에 대한 결정을 통한 자기 책임적 관리를 동반한다. 이는 직업능력개발법제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³⁰⁾

고용유연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늘리기나 실업급여 등의 직접적 급부 형태의 정책보다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강하고 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체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잠재적 힘을 인정하고 직업능력개발법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법제 도입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개발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성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³¹⁾



30) 최영숙, 전계논문, p.86

31) 정인수 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04, pp.3-5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교육기관 훈련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의 선정과 조사에 있어서 서울시와 경기지역에 있는 미용교육기관의 현재 훈련생 및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졸업생을 표본 대상으로 구성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정부를 비롯한 사회구성체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직업 능력개발계좌제의 잠재적 힘을 인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성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훈련기관은 지역 내 직업학교, 직업전문학원 등이며 훈련비용지원도 200만원 한도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수정·보완하여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원금액도 확대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2011년부터는 동훈련의 100%를 계좌제로 운영할 예정인 만큼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훈련생 모두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하여 단기적인 일자리 늘리기나 실업급여 등의 직접적인 형태의 정책보다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강하고 깊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 학위논문

- 강미나, 「여성 직업훈련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 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권정량,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권정남,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 금오공과대학교 산업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미아, 「미용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방안」,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향장미용학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선미, 「여성 실업자의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영진,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재동,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태훈, 「우리나라직업훈련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 고려대학교노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혜원, 「성인여성들의 미용교육 과정 만족도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디자인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정호, 「직업교육훈련의 법제에 관한연구」, 배재대학교법무대학원 법무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정희,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누후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박지홍, 황혜자,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안정연,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 뷰티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재연, 「산업사회에서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인희, 「직업전문학교 미용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미용산업경영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장연진, 「호텔 교육훈련 전이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영숙, 「직업능력개발법제의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경영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한우섭, 「여성 직업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허현란, 「기업 내 교육훈련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2. 단행본

- 김주섭, 『지역고용·능력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동리뷰 한국 노동연구원, 2004
- 이남철, 정지선,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이병욱, 『직업교육체제의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정인수 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04
- 노동부 정책정보,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2008

3. 인터넷 자료

- 광주발전연구원 (http://www.gji.re.kr/xe/board_green_news/6891)
- 직업능력지식 포털과 HRD Net (<http://www.hrd.go.kr/main.jsp>)
- 한국노동 연구원 (<http://www.kli.re.kr/kil-home/main/main.jsp>)
-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www.krivet.re.kr/ku/index.jsp)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의 목적은 미용교육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통해 미용교육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분석을 통해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연구자 : 이 정 현

지도교수 : 최 근 희

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경로를 통해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①국비무료교육 ②계좌제 교육 ③둘 다 이용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자 ②여자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전문대학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기타
5. 귀하는 국비지원교육에 참여하시기 전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셨습니다?
①학생 ②전업주부 ③자영업 ④사무직 ⑤영업직 ⑥서비스직 ⑦기타
6. 귀하는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①TV 광고를 보고 ②라디오 광고를 보고 ③신문 광고를 보고
④인터넷을 통해

- ⑤직업알선기관의 소개로(노동부 지방사무소, 시·군·구 직업알선기관,
인력은행, 채용박람회 등)
⑥기타(☞_____)

7. 귀하가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기관의 인지도 ②기관의 평가등급 ③기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④교사의 자질 ⑤훈련장비 및 시설 ⑥기관의 위치
⑦기관의 지원비용 ⑧기타(☞_____)

8.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2개월 ②3개월 ③4개월 ④5개월 ⑤기타(☞_____)

9.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①20~40일 ②40~60 ③60~80일 ④80~100일 ⑤100~120일
⑥기타(☞_____)

10.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1일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2시간 이하 ②2~4시간 ③4~6시간 ④6~8시간 ⑤8시간 이상

11.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1일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 ①2시간 이하 ②2~4시간 ③4~6시간 ④6~8시간 ⑤8시간 이상

12. 귀하가 현재 받고 있는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①현재에 만족한다
②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훈련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
야 한다

③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므로, 훈련시간을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

13. 귀하는 교육기간을 설정할 때, 미용교육기관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자율권을 주면 안된다 ②약간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③매우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④잘 모르겠다

14. 귀하는 미용분야에서 얼마간 근무하셨습니다?

- ①미용분야의 근무경력 없음 ②1년 미만 ③1년 이상~2년 미만
④2년 이상~3년 미만 ⑤3년 이상~4년 미만 ⑥4년 이상~5년 미만
⑦5년 이상

15. 귀하가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에 지원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②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③자격증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④높은 임금이 보장될 것 같아서
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교육비가 안 들어서
⑦기타(☞ _____)

16.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이 귀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교육 후 취업(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새로운 기술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③취업이나 능력개발보다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욕을 가지게 한다
④잘 모르겠다

※ 17번~23번은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교육 각각에 응답해 주세요.

17. 귀하가 현재 속해 있는 미용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재료)는 어떠합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매우 부족하다 ②대체로 부족하다 ③적당하다 ④대체로 많다
⑤매우 많다

18. 귀하가 현재 속해 있는 미용교육기관의 훈련인원은 어떠합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매우 적다 ②적은 편이다 ③적당하다 ④많은 편이다
⑤지나치게 많다

19. 귀하가 현재 속해 있는 미용교육기관의 교재는 어떠합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②만족스럽지 못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만족스럽다 ⑤매우 만족스럽다

20. 국비지원 직업훈련교육의 내용은 귀하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합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②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③기대하는 바와 같다 ④비교적 좋다 ⑤기대이상으로 좋다

21. 이론수업의 교육내용(수준)은 어떠합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매우 어렵다 ②약간 어렵다 ③적당하다 ④약간 쉽다 ⑤매우 쉽다

22. 실기수업의 교육내용(수준)은 어떠합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매우 어렵다 ②약간 어렵다 ③적당하다 ④약간 쉽다 ⑤매우 쉽다

23.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지원교육 ()번, 계좌제교육 ()번

- ①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②약간 분리된 느낌이다 ③보통이다
④서로 연결되어 있다 ⑤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4. 국비무료교육 과정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없다 ②있다(☞24-1번에 응답하세요)

24-1. 국비무료교육 과정 중에 포기할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②교육훈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동료간의 불화 때문에 ④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⑤불투명한 취업 전망 때문에 ⑥가족의 반대 때문에
⑦통학 거리가 멀어서 ⑧자녀의 보육문제 때문에
⑨가사(집안일) 때문에 ⑩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 ⑪기타

25. 계좌제교육 과정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없다 ②있다(☞25-1번에 응답하세요)

25-1. 계좌제교육 과정 중에 포기할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②교육훈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동료 간의 불화 때문에 ④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⑤불투명한 취업 전망 때문에 ⑥가족의 반대 때문에
⑦통학 거리가 멀어서 ⑧자녀의 보육문제 때문에
⑨가사(집안일) 때문에 ⑩교육훈련 중 생활비 때문에 ⑪기타

26. 귀하는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나쁜 편이다 ②대체로 나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좋은 편이다 ⑤매우 좋은 편이다

27. 귀하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미용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공의 세분화 ②교육기간의 연장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
③시설의 초 현대화 ④현장 근무자로부터의 산학협동교육
⑤기타(☞ _____)

28. 귀하는 친지나 주위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직업훈련을 권하시겠습니까?

- ①절대로 권유하고 싶지 않다 ②권유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③권유하고 싶은 편이다 ④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
⑤생각해 본 적이 없다

29. 현재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귀하의 진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수료하신 분은, 현재의 진로를 선택해주세요)

- ①곧바로 취업 ②취업을 한 이후 기회가 주어지면 진학
③부업이나 자영업 예정 ④다른 기술을 배울 예정
⑤생활에서 활용 ⑥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⑦기타(☞ _____)

30. 귀하는 다음의 미용직업 중 어느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헤어디자이너 ②피부관리사 ③메이크업전문가 ④네일관리사
⑤기타

31.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하세요)

- ①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 ②교육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교실실습, 현장실습 등과 같은 훈련방법)
- ③교육훈련교사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 ④교육훈련기관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하다
- ⑤기타(☞ _____)

32.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훈련기관에서 귀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하세요)

- ①관련분야에 재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 ②수료생 모임을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 ③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 ④교육훈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 ⑤기타(☞ _____)

33. 귀하가 현재 속해 있는 훈련기관에서는,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훈련과정 분야의 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아니오 ②예(☞ 33-1번에 응답하세요)

33-1. 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전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②대체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 ③그저 그렇다 ④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 ⑤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4. 현재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취업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보통이다 ④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⑤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35. 귀하는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교육 중 어느 쪽의 교육내용이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국비무료교육 ②계좌제교육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in Beauty
Educational Institutions
-Centering on Free Education for the Unemployed and Job Ability
Development Account System-

Lee, jung hyun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advance in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growing global competition have fueled the rapid changes of the labor market, and the importance of job training is increasingly stressed. As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recent economic crisis have accelerated an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the importance of a job training system geared toward the jobless is highlighted as well. The current job train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was introduced approximately 10 years ago to work through the unprecedented massive unemployment triggered by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is system has tried to provide extensive job training, there is a doubt whether unemployed people who underwent the training actually got a job. According to the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the 2008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just 20 percent of the job trainees who got that training in 2007 continued to work as of September, 2008, in companies that were insured against unemployment. It shows tha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job train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As for the significance of current education for the unemployed and the job ability development account system, free education is provided for unemployed people aged between 15 and 64 in Western age to be ready to get a job or start their own business. The job ability development account system earmarks two million won every year for the development of job ability and manages information on the training record of individual people including every sort of training provided from the government during their term of office or unemployment.

The ability development card and the workers course grants system are schedul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account system from 2010 by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flexible regulation of a time for the application of the account system to irregular workers and small company employees in consideration of the budget. The option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workers are increasingly emphasized in terms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nd it's meant in this study to explore how to regul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count system at this point of time where the independent option of worker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vocational ability is stressed in associ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ob ability development system, as there was a change in demand for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men and women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among those who received government-funded free education or education of the account system at beauty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y included office workers, homemakers, self-employed people and stud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women outnumbered the men, and many were high-school graduates and stay-at-home

homemakers.

Concerning their use of government-funded beauty schools, they received government-funded free educatio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t beauty schools than education of the account system. As to appropriate education time, the length of daily government-funded free education was relatively longer, and education of the account system lasted shorter than that. Regarding their outlook on social perception of beauty art, they thought that there was relatively positive social perception of beauty art, since they felt that the way people in general looked at beauty art was favorable or so-so. As for counseling provided by beauty schools, not all of them took an active attitude toward that, but counseling was provided to them about career or the prospect of employment. In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after getting training at beauty schools, they replied that it would be of some help, and they considered education of the account system to be more helpful to get a job than government-funded free education.

It's said that approximately 70 percent of the total budget for training for the unemployed has been allocated to the job ability development account system in 2010, and that 100 percent of the total budget will be allocated to the system in and after 2011. The ability development card and the workers course grants system are schedul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account system in stages from 2010, and when this system is applied to irregular workers and small company employees will be determined in a flexible manner in consideration of the budget. In this system, trainees of beauty art have to pay 40 percent of training cost from July 15, 2010, in order for them to make a discreet and responsible choice of training courses. That will serve to prevent their dropout and eliminate unnecessary demand for training.

There are various alternatives to the guarantee of job security, which include direct measures such as short-term job creation or a supply of unemployment allowance, but the job ability development policy is expected to produce more

powerful and efficient results in the long run. To make it happen, every member of society needs a change of mind- set, wake up to the potential power of this system and reach a consensus on the enactment of law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worker-led job ability development makes a contribution to not only their own vocational development but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business sector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t's needed to carefully watch the long-term and potential outcome of the system.

